

I . 교황의 충남 방문 배경과 의미

김정환 신부 ■ 내포교회사연구소장

1. 머리말

올해 8월 충청남도는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의 방문을 앞두고 있다. 세계적인 국민의 방문이고 교황의 행보에 따른 대규모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어 충청남도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황의 방문이 가져오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파급 효과로 말미암아 특정 종교 지도자의 방문으로 국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교황에 선출된 이후 검소한 생활과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꼽히는 그가 올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는 중요한 계기가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청년대회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천주교 대전교구와 충청남도는 방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황이 충남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미 올해 초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해외의 국민 방문이 처음부터 서울이 아닌 지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례적 이어서 그 목적과 과정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방문은 2014년 8월로 예정되어 있던 아시아청년대회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충남 일원에서 펼쳐질 이 대회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내포지방의 천주교와 관련하여 행사 장소를 선택하였기에 교황의 방문이 최종적으로 충남 방문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교황의 충남 방문은 외적으로 보면 우연의 결과일 수 있으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교황의 방문이 성사되기까지의 여러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이 작은 글을 통해 교황의 충남 방문 배경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고찰해보기로 한다.

2. 청년대회와 교황

교황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아시아청년대회(Asia Youth Day: AYD)에 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청년들의 축제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고, 다른 일정들은 이에 따른 교황의 방문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졌다. AYD는 기존에 있던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에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한국청년대회(Korea Youth Day: KYD)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와, 이들 대회와 교황과의 관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 세계청년대회(WYD)

세계청년대회는 영문으로는 'World Youth Day'로 불리며 'WYD'로 약칭된다.

천주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행사로서 종교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 대회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Pope John Paul II)에 의해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2년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1984년과 1985년에 연이어 당일 행사로 진행되었고 참석 인원도 30만 명 정도로 이후의 다른 대회에 비해 많지 않았다.

1987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3회 대회 때부터 행사 주기가 2년 혹은 3년 단위로 정례화 되고 행사 기간도 길어져 지금은 본 행사가 6일로 정착되었다. 참석자 수는 나라의 사정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0만 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에 열리는데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에 열리고 있다.

[표 1-1] 세계청년대회 현황(세계대회 기준)

연도	일시	개최지	참석자 수
1984	4월 15일	이탈리아, 로마	30만
1985	3월 31일	이탈리아, 로마	30만
1987	4월 11~1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00만
1989	8월 15~20일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40만
1991	8월 10~15일	폴란드, 쳉스토호바	160만
1993	8월 10~15일	미국, 덴버	50만
1995	1월 10~15일	필리핀, 마닐라	400만
1997	8월 19~24일	프랑스, 파리	120만
2000	8월 15~20일	이탈리아, 로마	200만
2002	7월 23~28일	캐나다, 토론토	80만
2005	8월 16~21일	독일, 쾰른	120만
2008	7월 15~20일	호주, 시드니	40만
2011	8월 16~21일	스페인, 마드리드	200만
2013	7월 23~2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370만
2016	미정	폴란드, 크라쿠프	

출처: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

* 참석자 수는 폐막 미사에 참여한 인원.

WYD는 매년 청소년의 날에 각 나라의 천주교회에서 열리는 대회도 회차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2013년 브라질에서 열린 대회는 제28차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한 나라에서 주최하고 교황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대회를 WYD로 인식하고 있으며 규모도 크다.

이 행사의 특징 중 하나는 ‘홈스테이(home stay)’에 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주최국에서 마련한 가정집에 머물며 행사 기간 동안 함께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앙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져 서로 간의 일치가 돈독히 이루어진다.

한국 청년들도 이 대회에 참석하는데 작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WYD에도 참석한 바 있다. 본래 이 대회는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FIFA 월드컵의 개최지가 브라질로 예정되어 있어 한 해를 앞당기게 되었다. 브라질 대회에서는 한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이 대회의 '전구자(轉求者)'¹⁾로 김대건 신부와 한국 순교 성인들이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WYD는 전통적으로 대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의 일치를 위해 전구자를 선택해왔다. 이번에 김대건 신부를 대표로 하는 한국의 순교자들이 선정된 것은 한국 천주교회 역사가 세계 천주교회 안에 점점 각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교사가 없이 평신도의 힘으로 천주교 수용이 이루어진 한국의 역사는 세계 교회 안에 새로움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림 1-1] 2013년 세계청년대회 관련 언론 보도

성 김대건 사제와 한국 순교성인들 2013 세계청년대회 전구자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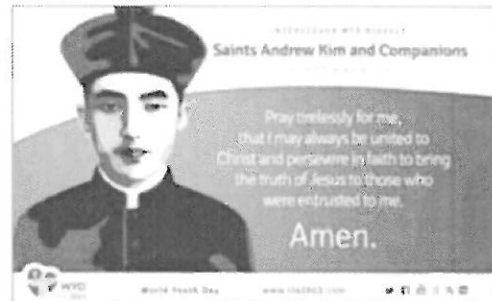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 한국 순교성인들에게 전구(轉求)를 청한다.

브라질 세계청년대회 본부는 최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비롯한 한국 순교성인 103위를 2013년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청년대회(WYD) 전구자로 선정했다.

본부는 "한국교회 순교자들은 1839-1866년에 걸친 세 차례 박해에서 순교했으며 그들의 고귀한 피는 한국교회 초석이 됐다. 우리는 이들을 복음화의 순교자로 부른다"고 대회 공식 누리방(www.rio2013.com)에 소개했다.

또 페이스북(www.facebook.com/worldyouthday)을 통해 김대건 성인과 동료 순교자들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카드를 배포하고, 전구자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바치라고 권고했다. 카드에는 "저희가 언제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굳건한 신앙을 지켜 온 거룩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라는 기도문이 적혀 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기도카드에 "아멘!" "청년들이



브라질 세계청년대회 본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한 기도카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청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본부가 게시물을 올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500명이 넘는 이들이 공감한다는 의미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기도 했다.

제28차 세계청년대회의 수호자는 아파레시다의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성 세바스티아노, 산타나 갈바오의 성 안토니오,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 복자 요한 바오로 2세다. 이 밖에 '악과 맞서 싸우는 투사' 성 제오르지오, '가난한 이들의 종' 복자 프레데릭 오자남, '정결의 순교자' 복녀 라우라 비쿠냐 등 세계 12위 성인이 전구자로 선정됐다. 김은아 기자 euna@

출처: 김은아 기자, <평화신문>, 2012년 10월 6일자 기사.

1) 전구(轉求)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간청하고 탄원하는 행위로,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원의가 하느님께 전달되기를 청원하는 기도를 말한다.

2) 아시아청년대회(AYD)

아시아청년대회는 영문으로는 'Asia Youth Day'로 불리며 'AYD'로 약칭된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세계청년대회(WYD)의 영향으로 생겨났다. AYD의 태동은 1991년 폴란드 쳉스토호바에서 열린 WYD에서 찾을 수 있다.²⁾ 이 대회와 국제 포럼에 참석한 아시아 청소년·청년 대표들의 나눔을 통해 지역 교회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장이 필요함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주교회의는 1994년 청소년사목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심점이 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로 1999년 태국 후아힌에서 첫 번째 AYD가 열렸다.

[표 1-2] 아시아청년대회 현황

회차	연도	개최지	참석자 수
1	1999	태국, 후아힌	평균 700~800명
2	2001	타이완, 타이페이	
3	2003	인도, 방갈로르	
4	2006	중국, 홍콩	
5	2009	필리핀, 이무스 교구	2,700명
6	2014년 8월 13~17일	한국, 대전교구	6,000명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AYD는 2회부터는 WYD가 열리는 다음 해에 개최되고 있다. WYD의 대회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점차 정착됨에 따라 AYD도 그 주기에 따라 열린다. 다만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6회 AYD는 5년 만에 열리는데 2013년 브라질에서 열린 WYD가 월드컵의 영향으로 한 해 앞당겨져서 함께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AYD는 아시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로 WYD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작다. WYD의 경우 천주교 신자 비율이 높은 유럽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참석자들이 주축을 이루는데 AYD는 신자 비율이 낮은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시아 각국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비자 획득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대규모의 청년대회를 개최하고 또 다수의 청년들이 참석할 만한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AYD의 진행 방식은 WYD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사 기간은 3~4일 정도로 짧지만 참석한 청년들이 개최국의 여러 교구로 흩어져 부분적으로 홈스테이를 하며 신앙과 문화를 교류하고 폐막 미사로 끝을 맺는다. AYD의 주체는 아시아주교회의

2) AYD의 태동과 동향에 대해서는 조제인, '아시아청년대회Ⅰ', <가톨릭신문>, 2014년 6월 15일, 12면을 참조하였다.

여서 이들이 프로그램을 정하고 개최국의 교구에서 대회를 주관하는 이원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천주교회의 특성상 모든 것을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제6회 AYD는 한국 천주교회에 프로그램과 진행 전반을 맡겼다.

이상에서 드러나듯이 AYD는 아시아의 지역 교회에서 열리는 작은 소규모의 대회로 지금까지 교황이 참석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올해 대회에서는 예외적으로 교황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국제 규모의 행사가 될 예정이다. 아시아의 청년들뿐 아니라 각국에서 오는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이 함께 참석하며, 한국 내에서도 대규모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청년대회(KYD)

한국청년대회(Korean Youth Day, KYD)는 한국 천주교회의 청년 담당 신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 한국주교회의에서 결정한 대회이다. 대회의 명칭이나 내용을 보면 세계청년대회와 아시아청년대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YD는 처음부터 3년을 주기로 열리도록 결정되었는데 올해 대회는 AYD의 영향으로 한 해 뒤로 늦춰졌다.

[표 1-3] 한국청년대회 현황

회차	연도, 날짜	개최 교구	참석자 수
1	2007년 8월 18~21일	제주교구	약 4천명
2	2010년 8월 12~15일	의정부교구	약 3천명
3	2014년 8월 13~17일	대전교구	4천명

KYD는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각 교구별로 개최지를 돌아가며 열리는 한국 천주교회의 청년대회이다. 이 대회는 AYD가 있는 다음 해에 개최되는 별도의 행사이나, 한국이 2014년 AYD의 개최국으로 결정됨에 따라 올해 제3회 KYD는 제6회 AYD와 같은 기간에 열리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별도로 진행되지만 8월 15일 오후 솔피성지에서 갖는 교황과 함께 하는 시간부터는 공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8월 17일 해미읍성에서 교황이 집전하는 폐막 미사로 마무리된다. KYD 역시 WYD와 AYD의 영향으로 홈스테이를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여긴다.

KYD는 AYD와 마찬가지로 교황이 방문하여 함께 하는 대회가 아니지만 올해 교황의 한국 방문이 결정됨에 따라 국제 행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간도 길어지고 프로그램도 조정되어 두 청년대회가 공동으로 열리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8월 13일(수) - AYD 본대회 첫째 날

주제: 와서 보아라!(Come and see!)

아시아청년대회(AYD)			한국청년대회(KYD)		
시간	프로그램	장소	시간	프로그램	장소
15:00	개막 미사 <한국>	솔뫼성지	-	-	-
19:00	환영식 <한국>	솔뫼성지			
22:30	방 배정, 세면, 취침	중앙청소년수련원			

■ 2014년 8월 14일(목) - AYD 본대회 둘째 날/ KYD 첫째 날

주제: 우리 신앙의 근원을 찾아서(Let's discover the roots of our faith)

AYD			KYD		
시간	프로그램	장소	시간	프로그램	장소
08:00	애니메이션 <동남아시아>	국립 중앙 청소년 수련원	-	-	-
09:00	교구대회 나누기 <한국>				
09:30	주제 강의 및 연극<한국>				
11:00	로테이션 프로그램		13:00	KYD 개막미사	솔뫼성지
14:30	개인 신앙 나누기		15:00	환영식	
16:00	정리 프로그램(영상물)		18:00	본당 환영식	홈스테이 본당
17:00	미사 <동남아시아2>		20:30	가정 프로그램	가정
20:00	젠과 함께 하는 기도 <한국>				

■ 2014년 8월 15일(금) - AYD 본대회 셋째 날/ KYD 둘째 날

주제: 두드려라, 닫힌 마음을!(Knock on the doors of our closed hearts!)

AYD			KYD		
시간	프로그램	장소	시간	프로그램	장소
06:30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남아시아>	국립 중앙 청소년 수련원	08:00	이동 신리성지1200명(30대) 합덕성당1200명(30대) 여사울성지1000명(25대) 신합덕성당600명(15대)	3개 성지 및 신합덕 성당
09:00	애니메이션 <동남아시아 2>				
09:30	강의 <코야, 햇살>				
11:00	워크숍 <코야, 햇살>		10:00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16:30	교황님 맞이 준비	솔뫼성지	17:30	교황님과 함께 하는 시간	솔뫼성지
17:30	교황님과 함께 하는 시간				
20:30	두드림 축제		20:30	두드림 축제	

■ 8월 16일(토) - AYD 본대회 넷째날/ KYD 셋째날

주제: 함께하는 여정, 나, 우리, 순교자 그리고 예수님

Let's walk along with Jesus and the martyrs

AYD			KYD		
시간	프로그램	장소	시간	프로그램	장소
08:00	애니메이션(8:20~30)	국립 중앙 청소년 수련원	09:30	미사	한서대학교
08:30	미사(사비오 훈 주교)				
10:00	강의(사비오 훈 주교)		10:50	주제 강의(이광호 교수)	
11:00	증언 <남아시아>				
11:30	그룹 나눔		14:30	도보 순례	한서대 ⇒ 해미읍성
16:30	도보 순례 의미 소개 및 도보 순례	한서대 ⇒ 해미읍성	16:30	수도회 프로그램 참여	해미읍성
18:30	저녁식사, 고해성사	해미읍내			
20:00	Final Festival(해미읍성)				

■ 8월 17일(일) - AYD · KYD 폐막일

주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Go into the whole world and proclaim the gospel"(Mk16,15)

AYD			KYD		
시간	프로그램	장소	시간	프로그램	장소
08:00	애니메이션	중청	09:00	청년 신앙의 미래 (결의문 작업)	솔뫼성지
08:30	기도				
09:00	결의문 발표				
09:30	국가별 만남				
16:30	파견 미사(교황 집전)	해미읍성	16:30	파견 미사(교황 집전)	해미읍성
19:00	이동	해미읍성 ⇒ 중청	19:00 이후	집으로!	
22:00	정리 및 취침	중청			

3. 교황의 한국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이 충청남도를 방문하게 된 계기는 아시아청년대회(AYD)와 한국청년대회(KYD)가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열리기로 결정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예정되지 않았던 교황의 방문이 성사됨에 따라 국제 규모의 행사로 확대된 것이다.

1) 방한 결정 과정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AYD)의 한국 개최 계기가 마련된 것은 2009년 아시아 주교회의(FABC)에서 한국 주교회의에 AYD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³⁾ 한국 주교회의는 2010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고 대회의 장소와 주관을 대전교구에서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에는 2013년에 열기로 결정하였으나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가 2014년 월드컵으로 인해 한 해 앞당겨지자 제6회 AYD는 한 해 미뤄 2014년에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대전교구(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남도를 관할함)는 2011년 11월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2012년 3월에는 아시아 주교회의의 실무팀이 대전교구를 방문하여 1차 준비회의를 가졌고, 이어 9월에 2차 준비회의를 대전 대철회관(청소년회관)에서 가졌으며, 2013년 3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3차 준비회의를 가졌다. 세 차례의 준비회의 과정에서 대전교구의 특징인 내포 천주교회의 역사가 부각되면서 대회의 주제와 장소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3회 한국청년대회(KYD)도 2014년 대전교구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청년대회는 자연스럽게 “아시아의 젊은이여! 일어나라. 순교자의 영광이 너희를 비춘다!”는 공동 주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 주제에 걸맞게 대회 장소도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내포지방으로 선택되었다. 두 대회가 일정상의 차이로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되지만, 두 대회 모두 개막식은 솔피성지에서, 폐막식은 해미읍성에서 열리며 주요 프로그램은 내포지방에서 진행된다. 내포지방이 조선시대에 박해를 겪으면서 성장한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였고 또 순교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6회 AYD와 제3회 KYD의 주제와 장소가 정해지는 동안에도 교황의 방문은 예정에 없었다. 지역 천주교회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교황이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과정으로 교황의 방한이 성사되었다. 두 청년대회의 개최지인 대전교구의 교구장이 2013년 10월 교황에게 보낸 편지가 뜻밖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보낸 편지의 주요 내용은 이러하였다.

3) 이 과정에 대해서는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발생한 『2013년 사제연수 자료집』 112~118쪽을 참조하였다.

“아시아청년대회가 열리는 대전교구는 한국 순교자의 3분의 1을 배출한 성지들이 많은 교구로서, 성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한 이들이 우리의 장한 순교자들의 믿음과 삶을 본받는 은혜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 청년대회의 젊은이들과 대전교구 신자들, 한국 모든 신자들과 국민들을 교황님께서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희망과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단순히 하게 표현하여 편지를 드렸습니다.”⁴⁾

이 편지를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6회 AYD가 열리는 기간에 자신의 일정이 있는지를 알아본 후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8월은 교황이 휴가를 보내는 기간인데 그때를 이용하여 예정에 없던 방문을 결정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편지에서 주목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아시아의 청년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 교황(Pope Benedictus XVI)의 경우 그의 재임기간 동안 아시아를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고 한다. 그의 뒤를 이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아시아의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어 초대할 하자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사명감 부여이다. 근래 교황청 대변인 롬바르디 신부(Federico Lombardi)가 “한국은 특별히 아시아에서 가톨릭 교회가 활성화된 나라이기에 교황 방문의 자연스러운 후보지였다”⁵⁾고 말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인구는 가장 많으면서도 천주교 신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아시아 지역의 선교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한 몫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염원이 들어있다. 롬바르디 신부가 교황의 한국 방문이 “기쁨과 책임의 원천”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2) 한국에서의 일정

교황이 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천주교 차원의 행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수장으로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어서 그 방문이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교황의 방문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리도 마련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일정이 이를 잘 말해준다.

4) 미래사목연구소, 『사목경보』 2014년 6월호.

5) <평화신문> 2014년 6월 15일, 7면.

[표 1-4]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일정

날짜	일정	장소
8월 14일(목)	한국 도착	
	대한민국 대통령 예방	서울
	한국 주교들과의 만남	서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8월 15일(금)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대전 월드컵 경기장
	아시아 청년 대표들과의 만남	대전가톨릭대학교(세종시)
	아시아 젊은이들과의 만남	솔미성지(충남)
8월 16일(토)	한국 순교자 124위 시복 미사	서울 광화문 광장
	장애우 재활원 방문	음성 꽃동네(충북)
	수도자들과의 만남	
	평신도 지도자들과의 만남	
8월 17일(일)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	해미성지(충남)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	해미읍성(충남)
8월 18일(월)	타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	서울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서울 명동 성당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일정에서 드러나듯이 4박 5일의 기간 중 이틀이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에 배정되어 있다. 이것이 방문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한을 계기로 지역 교회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도착 당일인 8월 14일에는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 주교들과 만남을 가짐으로써 교황의 방한이 국가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 모두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다음날인 8월 15일 오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사는 아시아청년대회(AYD)를 개최하는 교구의 신자들을 위한 배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문 교구에 대한 관례이다. 이 미사에는 특별히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어 본래의 방문 목적인 아시아 청년들과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하루의 일정을 마친다.

8월 16일에는 먼저 한국 순교자 124위의 시복식(諡福式)⁶⁾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된다. 124위 시복 대상자 중 49위가 충남 출신이며, 타지역 출신으로 공주에서 순교한 2명을 포함하면 충남과 관련된 인물은 모두 51위이다. 이날 오후에 교황은 충북 음성의 꽃동네를 방문하여 장애우들과 시간을 갖고 수도자들과 만남도 갖는다.

8월 17일 교황은 아시아청년대회의 폐막 미사가 있는 해미로 이동한다. 먼저

6) 시복식(諡福式): 순교자나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복자품에 올린 때 행하는 의식.

해미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들과 만남을 갖고, 오후에 해미읍성에서 아시아청년들과 폐막 미사를 거행한다. 방한 마지막 날인 8월 18일은 일치의 여정으로 마무리한다. 타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종교 간의 일치를 도모하고, 명동성당에서 거행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통해 남북한의 일치를 염원하게 된다.

4. 방문의 기저: 내포 교회의 역사

교황의 충남 방문은 아시아청년대회가 열리는 모든 장소들이 내포지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우연의 결과로 보이지만 기저에서 작용하는 필연적 동인은 내포 천주교회의 역사에 있다.⁷⁾ 조선 후기 박해를 받으며 성장한 천주교회에서 신앙의 못자리 역할을 한 내포 천주교회가 그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시아청년대회에 초대하는 대전교구장 주교의 편지에서 “아시아청년대회가 열리는 대전교구는 한국 순교자의 3분의 1을 배출한 성지들이 많은 교구로서, 성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한 이들이 우리의 장한 순교자들의 믿음과 삶을 본받는 은혜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포지방에는 그 역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천주교 성지들이 조성되었고, 아시아청년대회가 그 장소들을 중심으로 열리게 됨으로써 교황의 방문이 충남의 방문으로 이어진 것이다.

1) 내포지방의 천주교 수용

한국 천주교회사 안에서 내포지방은 충청남도의 서북부 지역, 때로는 충청도 교회 전체를 일컬을 때 사용한다. 내포지방의 범위는 넓지만 조선 후기 천주교 수용과정 안에서 중심이 되는 곳은 삽교천의 천변지역이다. 삽교를 지나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의 천변에 위치한 여사울(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졌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풍성한 결실이 있었다.

여사울 출신으로 1784년 천주교에 입교한 이존창은 이 지역 최초의 신자로 천주교 전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기에 ‘내포의 사도’라 불린다. 그는 인근 고덕(예산군 덕산면)에 세거하는 광주 이씨 성호학과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 천주교를 알게 되었고 서울을 왕래하며 천주교 수용의 중심인물들과 교류하며 내포지방에 신앙을 확산시켰다.

내포지방 천주교의 특징은 집단적인 개종이 이루어지고 일반 양인들이 중심이 되어 실천적인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데 있다. 부유한 양인 신자들이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애금을 실천함으로써 신앙공동체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7) 내포 천주교회의 역사에 관해서는 김경환, 「제1장 천주교」, 『충청남도지 제22권 현대 종교와 신앙』,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187~249쪽에서 내포지방 부분을 요약하였다.

영향을 미치는 민중운동적 성격으로까지 발전하여 내포지방의 천주교 신앙은 하층민과 천민층으로까지 널리 전파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내포 신앙공동체는 조선 후기 내내 가장 탄탄한 공동체로써 천주교회 성장의 큰 축이 되었다.

2) 박해 속의 성장

천주교가 처음 수용된 정조시대에는 천주교에 대한 정조의 회유책과 나라의 안정을 위한 탕평책으로 말미암아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1800년 음력 6월 정조가 승하하고 11살의 순조가 즉위하자 양상이 달라져 정부주도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조선이 서양에 문호를 개방할 때까지 10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박해가 계속 발생하였는데 그중 신유(1801), 기해(1839), 병오(1846), 병인(1866)박해를 4대 박해라 한다.

신유박해로 충청도와 관련하여 순교한 이는 이름이 밝혀진 이가 남자 65명, 여자 8명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일으킨 이 첫 번째 박해로 법적 근거가 생김으로써 언제든지 천주교 신자들을 형틀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박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작용하여 천주교 신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확산되는 계기도 되었다. 특히 신자들이 많고 활동이 왕성하였던 내포지방 신자들이 충청도뿐 아니라 전국으로 피난하여 살게 됨으로써 신자들이 없던 지역에도 천주교가 전파되었다.

신유박해 때 순교한 후손들을 중심으로 1811년부터 조선천주교를 다시 일으키려는 교회재건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중국 북경에 있는 서양 선교사들과 연락을 재기하고 로마 교황청에도 편지를 보내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기를 청하였다. 그 결과로 1836년부터 프랑스 선교사들인 모방(Maubant) 신부, 샤스탕(Chastan) 신부, 앵베르(Imbert) 주교가 차례로 조선에 입국하였다. 그들이 조선에 입국하여 먼저 한 일은 조선인 성직자의 양성이었다. 이를 위해 최방제, 최양업, 김대건을 선발하여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중국 마카오로 파견하였다. 이들 중 김대건은 솔피(당진시 우강면 송산리)가 고향이고, 최양업은 청양 다락골(청양군 화성면 농암리)이 고향이므로 충남 출신이었다. 이들은 각각 첫째와 둘째 조선인 사제가 되어 천주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신유박해 이후 지역적인 박해가 자주 있었으나 조선 정부는 한 동안 천주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사이 선교사들이 입국하고 새로운 지도층이 출현하여 활동한 결과 신자가 크게 증가하여 1만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837년부터 권력을 잡은 풍양 조씨들은 정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기해년(1839)에 천주교 박해를 시작되었다. 박해가 시작되자 프랑스 선교사 앵베르 주교가 먼저 체포되었다. 그는 다른 신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두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냈고, 청양 다락골에 숨어있던 모방, 샤스탕 신부는 홍주에서 자수하여 서울로 압송되어 9월 21일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에 처해졌다. 기해박해로 서울에서는 200여 명,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각각 100여 명, 강원도와 경상도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

었다. 『기해일기』에 따르면 54명이 참수되었고, 옥사한 이들이 60명이었다.

1846년에 발생한 병오박해는 충청도 출신의 조선인 첫 사제 김대건 신부와 관련되어 발생했다. 기해박해 이후 페레올(Fereol) 주교가 1843년 제3대 조선대목구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마카오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대건에게 조선에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다. 기해박해의 영향으로 의주 국경을 통해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845년 8월 17일 상해 연안 김가항(金家港)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고 조선에 입국한 김대건은 1846년 5월 다른 선교사들의 입국을 위해 작성한 편지와 해도(海圖)를 중국으로 전달하기 위해 순위도에 갔다가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병오박해가 시작되었고 김대건 신부는 9월 16일에 새남터에서 군문효수되었다. 기해박해와 병오박해 기간 동안 충청도 출신으로 순교한 이들 중 이름이 밝혀진 이들은 남자 27명, 여자 6명이다.

병오박해 이후 병인박해(1866년) 전까지는 조선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잠시 평온을 누리며 성장한 시기였다. 1845년부터 1865년까지 모두 17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활동하였다. 1849년 중국에서 사제품을 받고 입국한 최양업 신부는 두 번째 조선인 사제로서의 장점을 살려 1861년 사망할 때까지 충청도를 포함하여 전국을 돌며 큰 활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신자들이 증가하고 선교사들이 계속 입국하자 1861년 10월에는 조선교구를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담당 성직자를 임명하였다.

[표 1-5] 조선천주교회 관하구역(1861)

관할구역	담당자
서울	베르뇌 장 주교(대목구장)
상부내포(홍주지역)	다블뤼 안 주교(부주교)
하부내포(충청도 서부)	랑드르 홍 신부
진발(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리델 이 신부
공주와 인근 지역	조안노 오 신부
경상도 서북부 지역	페롱 권 신부
경상도 서부 지역	칼레 강 신부

표에서 보듯이 상부 내포, 하부 내포, 충청도 동북부, 공주와 인근 지역 4곳이 충청도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하부 내포의 경우 황무실(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충청도 동북부는 진발(공주군 사곡면 신영리), 공주와 인근지역은 뽕병이(공주시 신평면 조평리)에 머물면서 사목했다. 이를 보더라도 충청도의 교세와 비중이 어떠하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4대 박해 중 마지막의 병인박해는 이전의 박해와 달리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1866년에 시작하여 대원군이 실각하는 1873년까지 계속된 혹독한 박해였다. 박해가 장기화되고 규모가 커진 데에는 외적 요인이 큰 몫을 하였다. 병인양요(1866), 덕산에서 발생한 오페르트 굴충사건(1868), 신미양요(1871) 등이 박해를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박해로 조선 천주교회는 그동안 형성해놓은 기반을 거의 잃었다. 특히 오페르트(Ernst Jakob Oppert)가 남연군 묘로 가기 위해 지나간 내포의 중심인 삽교천의 천변지역에 있는 교우촌들은 철저한 박해를 받았다. 그 결과 조선에서 가장 큰 교우촌이었던 신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황무실 교우촌의 신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피난하여 한 명의 신자도 살지 않는 마을로 변해버렸다.

3) 본당 설립과 성지 조성

병인박해로 철저히 파괴되었던 내포지방은 조선의 개항 이후 박해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신자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신자들이 늘어나자 충청남도 지역 최초의 본당들이 이곳에 설립되었는데 1890년에 함께 설립된 합덕본당과 공세리본당이다. 두 본당은 두 축이 되어 충청남도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담당하였고 안정이 되자 공세리에는 1922년, 합덕에는 1929년에 현재의 성당 건물이 지어졌다.

현대에 이르러 조선 후기 천주교의 역사를 풍부히 담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들에는 성지(聖址)가 조성되었다. 내포지방을 중심으로 그 장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여사울 성지

여사울은 내포의 사도라 불리는 이존창의 고향으로 최초로 천주교를 받아들여 전교 활동이 펼쳐진 곳이다. 이존창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전교를 하여 예산, 아산, 당진, 면천, 서산, 덕산 등 여러 고을에 천주교를 전하였다. 박해가 일어나자 이 지역 신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내포지방은 한국 천주교회의 못자리라 불린다.

② 솔뫼 성지

솔뫼는 한국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지이다. 증조부 김진후(1814년 순교), 종조부 김진후(1816년 순교), 부친 김제준(1839년 순교), 그리고 김대건 신부(1846년 순교) 등 4대의 순교자가 살던 곳으로 김 신부의 신앙과 삶의 지표가 짙은 곳이며 ‘한국의 베들레헴’이라고도 한다.

③ 신리 성지

신리는 조선시대 천주교 수용 초기부터 형성된 가장 큰 교우촌이었다. 주민 400여 명이 모두 신자인 마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자들이 많았던 만큼 박

해도 심하여 순교자들도 많았던 곳이다. 특히 1866년 병인박해와 1868년 무진박해를 통해 마을 전체 신자가 죽거나 피난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연고로 인근에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 순교자들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④ 다락골 성지

청양 다락골은 조선 후기 박해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온 산골 교우촌이었다. 두 번째 한국인 사제인 최양업 신부 집안의 고향으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 아들 최양업 신부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복자 이성례 마리아와 최해성 요한 등 여러 순교자들이 다락골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 규모가 큰 교우촌은 아니었으나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날 때까지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던 마을이었다. 다락골의 뒷산에는 병인박해 때 공주와 홍주에서 순교한 분들을 수습하여 묻은 줄무덤이 있다.

⑤ 해미 성지

해미 성지는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 순교자들이 많은 곳이다. 직간접적으로 신원이 밝혀진 순교자는 132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이름을 알지 못한다. 내포에서 잡혀온 천주교 신자들이 무수히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정확히 기록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미는 형벌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아 1868년 무진박해 때에는 신자들을 생매장하여 순교에 이르게도 하였다. 이름이 밝혀진 해미 순교자들 중에서 인언민 마르티노, 이보현 프란치스코, 김진후 비오가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품에 오른다.

⑥ 홍주 성지

홍주는 내포를 관할하는 중심 도시이고 군사상으로는 진영이 있던 곳이기에 내포 각지에서 체포된 신자들이 홍주로 이송되어와 순교하였다. 홍주 성지는 도심지 안에서 순교자들의 흔적들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장소이다. 신자들이 신문과 형벌을 받던 관아(홍성군청 내)가 남아 있고, 순교자들이 갇혀 있다가 죽음에 이른 감옥이 본 자리에 복원되어 있으며, 도심 천변에서 순교 터의 표식을 볼 수 있다.

2014년 8월 아시아청년대회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성장하고 흔적을 남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내포지방 전역에서 열린다. 여기에 교황의 방문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내포지방의 천주교 역사는 세계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5. 맺음말

2014년 8월에 있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은 단기, 장기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 1984년에 있었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방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1984년은 한국 천주교가 200주년이 되는 해로 103위 성인의 시성식이 서울에서 거행되었다. 오는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도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적 장소에서 펼쳐지는 아시아청년대회와 서울에서 거행되는 124위의 시복식이 예정되어 있어 1984년과 서로 닮아 있다. 충남을 중심으로 그간의 변화를 살펴보자.

1984년을 전후하여 충남의 천주교회는 그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내포지방은 '신앙의 못자리'⁸⁾로 불리며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까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신앙학교의 장소로 줄을 이었다. '솔피-합덕성당-신리-덕산 한티고개-해미' 구간은 옛 천주교 신자들의 삶의 공간에서 순교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역사성과 그 장소들이 서로 근접해 있어 자연스럽게 순례길이 형성되었다. 더구나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장점도 있어 학생 순례자들이 대규모로 찾아왔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성지 순례가 주춤하면서 새로운 순례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1984년 이후 충남에는 조선 후기 신자들이 집중적으로 살던 지역과 순교지에 성지가 조성되었는데 갈매못 성지를 실례로 그 조성 과정을 살펴보자. 갈매못은 다블뤼 주교 등 5명의 성인들이 순교한 장소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으나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도 좋지 않아 찾는 이들이 드물었다. 하지만 1984년 시성식에 참석한 프랑스 신자들이 대거 갈매못을 순례함으로써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후 천주교 대전교구에서는 전담 사제를 파견하였고 기념 성당이 마련됨으로써 지금은 솔피 성지, 해미 성지와 더불어 충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순례지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남의 각 지역에 천주교 성지가 조성되어 현재 전담 신부가 파견되어 있는 곳이 13군데에 이른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천주교 성지들은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성지가 집중되어 있는 내포지방은 수도권과 가까워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여기에 2008년 이후 '여사울-신리-합덕성당-솔피'를 잇는 정기 도보순례가 1년에 두 차례로 정착되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2011년부터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⁹⁾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개인, 혹은 소규모로 성지를 정기적으로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8) 이 표현은 이미 180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었다. 다블뤼(Daveluy) 주교는 1857년 프랑스로 보내는 편지에서 내포지방을 '이 나라 신앙공동체의 못자리'라고 표현한 바 있다. "Quelle constance, quels mérites, aussi les lieux voisins de ce long martyre ont toujours été la principale pépinière de cette chrétienté, ici comme ailleurs *Sanguis Martyrum semen christianorum*- Heureuse terre si généreusement fécondée, est-elle arrivée au jour de la moisson, ou bien le jardinier céleste doit-il en core l'engraisser?" (1857년 다블뤼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편지).

9) 이 책은 각 성지를 방문하면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순례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러한 순례의 움직임은 천주교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뜻밖의 기능도 한다. 내포신도시의 탄생과 더불어 더욱 주목받는 '내포'라는 이름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내포(內浦)는 조선시대에는 널리 사용되던 이름이나 근현대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잊혀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학자의 오류로 한때 내포가 금강유역에 자리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다.¹⁰⁾ 그러나 내포지방으로의 성지 순례가 이어지면서 '내포'라는 이름이 다시 깨어나 확산되기 시작한다. 천주교 역사 속에서는 '내포', '내포 사람', '내포지방', '내포평야', '상부 내포', '하부 내포'라는 말이 늘 사용되었고, 이 지역을 찾는 순례자들에 의해 그 이름이 확산되었다. 이는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고 충남 도청소재지의 이름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대체로 도시 명칭을 놓고 지역사회 안에서 큰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내포신도시가 별다른 갈등 없이 내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이름에 대한 연대 의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교황의 방문길은 솔피 성지에서 시작하여 해미 성지와 해미읍성에서 마무리된다. 이는 기존의 '솔피-합덕성당-신리-한티고개-해미'를 잇는 순례길인데, 이번 아시아청년대회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이들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행사를 하며 도보 순례를 하게 된다. 이 길은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버그내 순례길과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내포문화숲길의 중요 구간이기도 하여 교황의 방문 이후 한국의 대중적인 순례길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황의 방문을 당진시에 국한하여 볼 때 기대되는 변화들도 있다. 현재 당진시는 한국 안에서 경제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문화적 측면은 미약한 편이어서 대안이 필요하며, 합덕읍과 우강면이 위치한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의 해소를 위해 당진시는 남부지역을 문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교롭게도 교황이 방문하고 아시아청년대회가 열리는 장소인 솔피 성지, 신리 성지, 합덕 성당, 신합덕 성당은 남부지역에 속해 있어 그 특성을 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진의 종교·문화적 가치를 부각시키는데 일조할 것이 분명하다.

교황의 방문은 확정 발표가 나기 전부터 이미 효과를 내고 있다. 방문지로 예정된 솔피 성지는 예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방문자 수가 늘었다. 올해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전국의 성지들과 유원지들의 방문자가 크게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 예전의 방문자들이 주로 천주교 신자들에 국한된 데 비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오고 있으며, 외국인 방문자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선례를 볼 때 장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분야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 임선빈, 「내포지역의 특성과 사회구조」, 『내포천주교의 역사와 문화』, 내포교회사연구소, 2012, 76쪽.